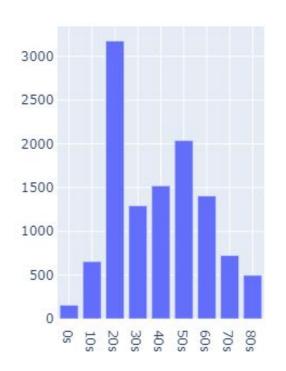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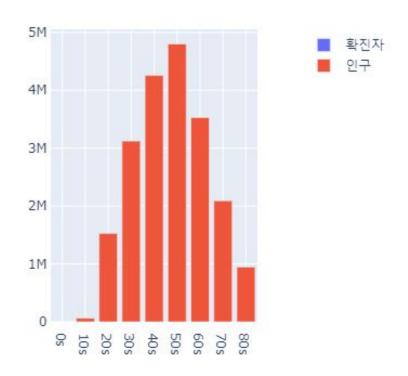
1. 연령대별 확진자 분포





1. 연령대별 확진자 분포

20대의 누적 확진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은 20대의 확진자 비율은 예상과 크게 어긋납니다.

20대 인구수가 많아서 확진자가 많은지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인구수와 확진자 수는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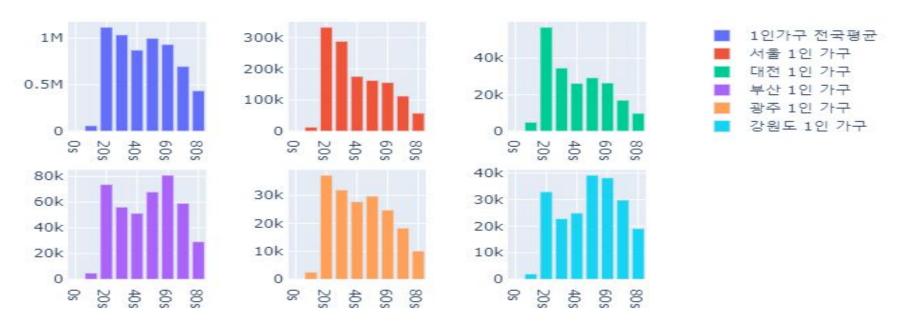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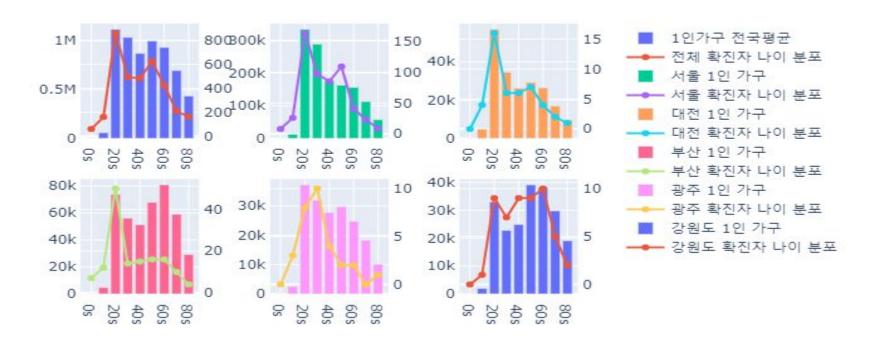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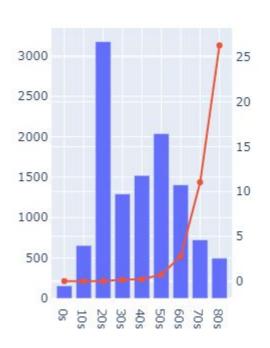
1인 가구가 혼자 살기 때문에 부담과 책임감이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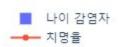
확진자 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전국 평균과 주요 지역의 연령별 1인 가구 분포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확진자 그래프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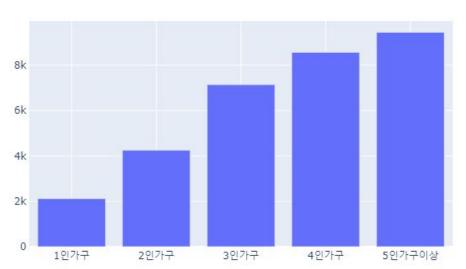
20대의 확진자 수와 1인 가구 수가 가장 크게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20~30대 이후로는 비례하는 정도가 작아지는데 치명률과 같은 다른 변수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으로 **1**인 가구가 확진자 수에 영향을 주고 **20**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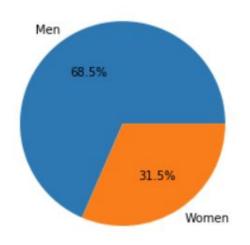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 특성과 1인 가구 수와 확진자가 비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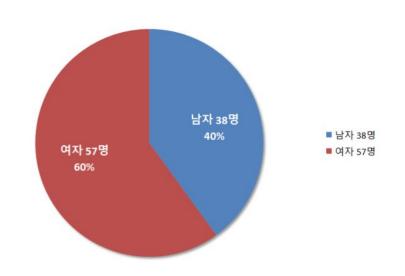
소득



첫 번째 특성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수준 분포 데이터를 보고 1인 가구가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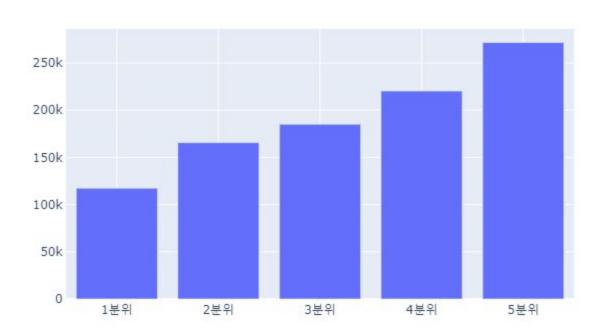
man woman ratio





남녀 소득수준으로 분류하면 확진자 수와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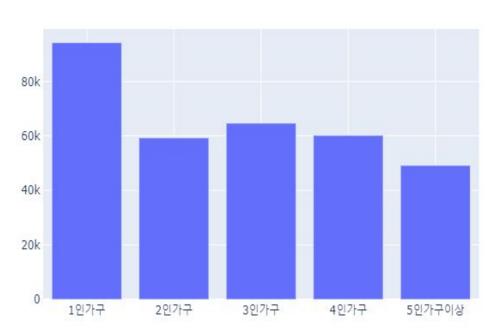
고로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특징이 확진자 수와 **1**인 가구 수가 비례하는데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 소득 분위별 보건 지출 분포 데이터를 통해 소득 분위가 커짐에 따라 보건 지출비용이 커지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가 지출 비용



다음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여가 지출비용 분포 데이터를 보고 1인 가구가 가구 원당 여가 지출 비용이 가장 큰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로 1인 가구가 여가생활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커지면서 확진자 수에 영향을 끼치고 확진자 수와 **1**인 가구 수가 비례하는데 영향을 준다.

4. 결론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고 여가 지출비용이 크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영향을 끼치고 비례했으며 20대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체 20대 확진자 수 비율이 커지는데 영향을 줬다.

1인 가구가 코로나 주 전파원일 가능성이 크다.